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력산업발전위원회 발족, 활동개시**

한 국전력공사의 발전·배전·판매 부문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민영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전력기자재 납품의 40% 정도를 한전에 의존하였던 우리 전기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한전 민영화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에 전기제조업 단체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조충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중전산업계의 능동적 대처, 향후 한전에서 분리된 회사와 호혜적인 관계정립 및 이들 회사와의 구매·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불공정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전력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3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및 「대한전 중전기 애로센터」 현판식 등을 거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은 전기진흥회·전기조합·전선조합 등 관련단체 및 전기연구원·품목별 업계 추천 18인이며, 위원장은 전기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이 맡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전기진흥회내에 설치하며, 홈페이지에 「대한전 중전기 애로센터」를 개설키로 하여 수시로 업계 애로사항을 접수

키로 하였다.

동위원회는 중전업계 건의를 수시로 접수하여 분기별로 심의키로 하였으며, 전문분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앞으로 한전의 개발·검수·시험제도·물품대급 등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정부 및 한전 주요인사들을 초청하여 정보교류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설립근거법인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회 명칭도 이에 의거 지난 2월 26일부터 「한국전기산업진흥회(韓國電機産業振興會)」로 변경하였다.

**대한전선(주)**

**옵토매직 및 Level 3와 국내에 합작사 설립 최종계약 체결**

국내 최대의 케이블 제조업체인 대한전선(대표 이청용), 대한전선의 광섬유 전문 자회사인 옵토매직(대표 김정훈), 그리고 글로벌 광대역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회사인 Level 3(대표 스티브 리들)는 최근 국내에 JV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3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광대역 서비스 시장 중 하나인 국내 인터넷 및 커뮤니케이션 시장규모에 부합할 광대역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공급하는데 협력할 계획이

다. 새로운 JV는 대한전선/옵토매직과 Level 3가 각각 51대 49 비율의 지분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옵토매직의 김정훈 사장은 Level 3와의 합작을 통해, 대한전선과 옵토매직이 국내의 케이블 시장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적극적인 기업정신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자사는 Level 3와의 JV 설립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새로운 회사를 통해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번 JV의 설립의미를 밝혔다.

한편 Level 3 아시아의 CEO인 스티브 리들(Steve Liddell)은, Level 3는 대한전선 및 옵토매직을 한국 내 파트너로 맞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양사가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쌓아온 명성과 노하우는 Level 3가 세계 최대의 광대역 시장 중 하나인 한국시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번 합작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JV는 한국을 일본, 홍콩, 대만을 포함한 주요 북아시아 시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이들 아시아 시장을 미국 및 유럽으로 완벽하게 연결하게 될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준비중에 있다.

Level 3의 북아시아 케이블 시스템

일부를 형성, Tiger라 명명된 이 케이블 시스템은 완성과 함께 대단위의 광대역 서비스를 저가에 국내에 공급할 예정으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LG산전(주)

#### 산업용 통신 모듈 개발

LG산전(www.lgis.co.kr)은 지난 1년간 3억 여원의 개발비를 투자,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오픈 필드버스(Fieldbus)의 일종인 프로피버스(Profibus)-DP 모듈 4종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프로피버스-DP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생산 현장에서 PLC(논리연산제어장치), 센서, 모터, 밸브, 로봇 등의 기기를 제어하는 통신기술이다.

디지털 방식은 프로피버스-DP는 기존의 아날로그 통신방식에 비해 대량의 신호를 원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으며 케이블 등 전송 기자재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1/5 정도로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실시간 처리의 능력을 갖는 빠른 통신속도(9.6kbps~12Mbps)로

주변장치와의 연결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커서 특히 자동화시스템과 현장 기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LG산전은 프로피버스-DP모듈을 자사의 글로파(GLOFA) PLC에 적용함으로써 프로피버스-DP를 채택한 타사의 많은 필드기기들과의 접속 및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글로파 PLC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프로피버스-DP 모듈 관련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CL(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란?

논리연산, 순서조작(Sequencing), 타이머, 카운터 및 산술연산 등의 제어 동작을 행하고 제어 순서를 일련의 명령어로 기억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이 메모리의 내용에 따라 기계와 공정제어를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을 통해 행하는 디지털 조작형 공업용 전원장치임.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이병설 이사장 취임

한 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3월 9일 조합 7층 대회의실에서 이용희 전임전기조합이사장, 홍백과 계량계측기기조합 이사장 등 내외빈과 150여명의 조합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설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병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

해 “앞으로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지키고 더 많은 품목이 전기조합으로 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물량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전국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조합과 조합원사들이 힘을 합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이용희 전임전기조합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병설 이사장이 단체수의 계약 품목을 유지하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젊음과 패기로 전기계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케이디파워

#### 중전기시장 수출주도 필리핀 국영 경전철사업 참여 등

전 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진朱)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필리핀 국영 경전철사업”에 참여한다고 지난 3월 12일 발표했다. 우선 경전철사업 중 지능형 MCC P/L부분에 참여하며 1차분 50만불에 대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국책사업으로 향후 8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 500만불의 시장선점이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당사의 지능형 MCC는 기술력을 결집하여 자체 개발한 신제품으로 인터넷

을 이용한 무인운전과 제어시스템, 획기적인 에너지절약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고, 제품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미국의 SQUARE, 독일의 MOLLER 등 외국의 우수제품과 견주어도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으로 최종 낙점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케이디파워는 '97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꾸준한 시장개척 활동을 벌여왔으며, 작년에는 중국시장에도 진출하여 지능형디지털 계측제어기를 500만대 이상 수출계약도 체결하였고, 수출선 다변화도 꾀하여 미주와 유럽지역에도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이에 (주)케이디파워는 전 제품의 Digital화를 기반으로 이를 응용한 실시간 전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기업계와 산업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더 수출 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 두산중공업(주)

### 한국중공업에서 사명 변경, 새출발

한중은 지난 3월 23일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민영화 이후 첫 주총인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개정, ▲2000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

#### 〈사명변경〉

이날 주총에서 한국중공업은 사명을 두산중공업(주)(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난 20여년간의 공기업 시대를 마감하고,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주총에서 윤영석 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이미지의 민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하고, “두산과의 기업 이미지 통합(CI)을 통해 민영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또 “지속적인 경영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발전·담수 분야 등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이익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며,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명 변경에 따라 한중은 지난 '80년 현대양행에서 한국중공업으로 공기업화된 이후 한국 산업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영주체의 빈번한 교체 속에서의 파란만장한 과거사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 〈사업실적 및 계획〉

이날 승인된 2000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중은 매출에서는 지난 '99년

보다 9% 늘어난 2조 4091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당기순이익은 2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발생에 대해 한중은 민영화에 따라 올해부터 클린 컴퍼니(Clean Company)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공기업시절 보유하고 있던 미회수 채권,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 잠재부실이 예상되는 모든 자산을 평가성 충당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그러나 적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어 있어 소액주주에 한해 2%를 배당기로 결정했다.

윤 사장은 “한중은 설정 충당금 중 상당한 금액의 환입이 예상됨으로써 2001년도부터는 상당한 손익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올해 경영목표는 수주 3조 4812억원, 매출 2조 5527억원, 경상이익 1156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사선임〉

한중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또한 잇따라 이사회를 열고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내이사(8명)

- 대표이사: 회장 박용성(朴容晟), 부회장 민경훈(閔庚勳), 사장 윤영석(尹永錫), 부사장 김재학(金

載學), 부사장 최송학(崔松鶴)

• 이사: 박용만(朴容晩), 이창식(李昌植), 박지원(朴知原)

-신임 사외이사(6명)

• 안천학(安千學), 이종훈(李宗勳), 김태준(金泰俊), 서윤석(徐允錫), 권태명(權泰鳴), 오세중(吳世鍾)

이로써 한중은 임기중인 황경인(黃慶仁), 조성진(趙成鎭)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하여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8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한중은 올해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톡옵션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한중 주주총회는 산업은행, 한국전력, 외환은행 등 대주주사를 비롯, 3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가 관리 방안, 2001년 사업계획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 한전KDN(주)

### 스피드 경영을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혁신

**한** 국전력 계열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전KDN(사장 鄭然東)은 최근 스피드 경영의 일환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임원과 부서장 위주의 금요일간담회를 금요일전략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논의사항을 현장 쟁점 중심으로 선정, 최고경영자와 실무팀장이 직접 토의에 참여해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현안 해결책을 생산하도록 했다.

또 주간·월간회의 등도 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회의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60분 best 회의' 운동을 실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전KDN은 부서별 선입PL(파트 리더) 및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계속성장을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 ▲무한한 상상력 ▲우수인재 확보 ▲외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낭비요소 배제 등 4개 과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와 직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전KDN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통해 의사소통의 원활화, 부문간 시너지 효과 및 회사간부의 대외영업활동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

### 소학회 기능 강화 논문편집권 등 권한 이양

**대** 대한전기학회(회장 권옥현)는 학술대회와 학술논문지 발간

권한을 4개 부문회에 대폭 이양, 소학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대한전기학회는 지난 3월 2일 본부가 총괄해오던 추계학술대회를 '4대 부문회 추계학술대회'로 개편하고 심포지엄을 비롯한 연구회 학술발표도 각 부문회가 관리,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학회논문지 편집권을 4개 부문회에 부여, 부문회의 심의를 거친 논문만을 게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학회는 최근 편집위원회를 본부 편집위원회와 4개 부문회 편집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전기학회는 지난 해 14개 연구회를 분야별로 나눠 '전력기술부문회',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회', '전기물성·응용부문회', '시스템 및 제어부문회' 등 4개 부문회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일본전기학회(IEEJ), 중국전기공정학회(CSEE), 중국전기공학학회(CES) 등 외국학회와 대표단을 교류하고 한·중·일 3개국 전기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ICEE 국제학술 회의에 참가하는 등 외국학회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학회는 한국산업규격(KS) 제정학술용역사업과 기술조사전문위원회 기술조사보고서 발간, 연구조사위원회 개최, 용어사전 편찬 등 연구조사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